



2일 전북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서거석 교육감, 박주용 신임 부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떡케이크를 자르며 전 손을 모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속도 · 현장중심 · 혁신’

서거석 교육감, 새해 도교육청 시무식서 “열정으로 새 미래 열자”

서거석 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속도, 현장중심, 혁신을 강조했다. 먼저, 서 교육감은 속도를 언급하며 “현장에서는 당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외치는 행정을 실행한다”며 외부 위원회를 예능 등 너무 무겁고 발목을 디디면서 “절차를 위한 절차가 아닌

지 성찰해야 하고, 필요한 사업과 정책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학교 현장의 필요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정책과 사업이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피고 나아가 정책의 효과는 있는지 촉각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혁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혁신에는 고통이 뒤따른다”면서 “나부터 혁신해야 교육대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 중천단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시무식에서 직원들은 교육가족의 새해 희망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후, 한목소리로 파이팅을 외치며 합창 출몰을 다짐했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계명대, 재학생 공동 인성교육 과정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도덕교육원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계명대학교 계명인성교육원과 각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동인성교육 과정을 진행했다. 최근 천안 소노벨 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공동인성교육 과정은 지역이 다른 학생들과 상호 교류 속에서 자기 이해와 협동, 배려, 글로벌 시민의식 등 인성 함양을 위한 과정으로 운영됐다. 특히 각 대학이 개발한 자체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토론과 협력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실천적 교육으로 구성돼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깊은 질문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인성교육을 받으면서 처음 보는 학생들과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원광대와 계명대는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를 목적으로 1998년 5월 결연을 한 이후 행정정보교과, 학술 및 체육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기독교와 원불교는 서로 다른 종교의 종립학교로 운영되고 있지만 영·호남이라는 지역 특수성과 종교의 벽을 넘어 오랜 기간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우석대, 전임교원 보직 인사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1월 1일자로 창업지원단장에 이종석(컴퓨터공학부) 교수를 임명하는 등 전임교원에 대한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대학장에 박상주(경찰행정학과) 교수, 식품과학대학장에 이보순(호텔외식조리학과) 교수, 약학대학장에 임재운(약학과) 교수, 자율전공대학장에 조범중(교양대학)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한편 이종석 신임 창업지원단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8년 부임해 신화협력선도대학사업단장과 기초및자연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LINC 3.0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정은성 기자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 노력”

박주용 전북도교육청 신임 부교육감이 취임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박 부교육감은 이날 시무식에 참석하면서 전북교육청에서의 첫 업무를 시작했다. 1968년생인 신임 박 부교육감은 무주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와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교육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4년 공직에 첫발을 내딛었으며, 전남대 사무국장, 순천대 사무국장,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역임했다. 박 신임 부교육감은 “모든 교육정책을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서거석 교육감님과 함께 학



박주용 신임 부교육감이 2일 도교육청 시무식에서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 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열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공모

도교육청, 6일까지 신청 · 접수... 내달부터 진행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실 운영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미디어를 올바르게 읽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분별력 있게 수용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미디어교육 전문기관이 3개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해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주요 사업분야는 학교교육과정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수 역량강화, 자료 개발 실천연구, 미디어 리터러시 네트워크 지원 등이다. 세부과제로는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실 운영 △교원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연수 △학교급별 미디어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교육콘텐츠 개발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열린 포럼, 토론회 등 개최 등이 있다. 미디어교육 협력기관 지정은 희망하

“뜻·열정으로 어려움 극복해내자”

전북대, 새해 시무식 정부포상 전수식 병행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일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시무식을 갖고 2023년 한 해를 힘차게 시작했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시무식은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들과 정부포상대상자, 교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정부포상 전수식과 함께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부 포상 전수식에서는 조호성 교수(수의대)가 농업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나지은 팀장(학사관리과)이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윤희상(총무과)·박재오(재무과)·문재열(정보전신원), 강현찬(교무과), 채수임(기획과), 박은진(학생과) 직원은 기획과는 단체로 각각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동원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등 지난 4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 6,3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교육·연구 개선 사업을 유지했고, QS 등 대내외 평가 거점국립대 2위, 표준협회 재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4년 연속 거점국립대 1위, 국제화 역량 교육부 평가에서 국립대 유일 최고 등급을 받는 등 다양한 성과를 올렸다”며 “이 모든 성과는



전북대학교는 2일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시무식을 갖고, 2023년 한 해를 힘차게 시작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육과 연구에 최선을 다해 준 교수님과 행정 서비스 향상에 힘써 준 직원 선생님 그리고 글로벌 인재를 지향하는 학생 여러분의 열정 덕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말 총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도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4년 동안 큰사람을 키우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도약을 위해 하루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며 “국회와 정부 부처를 다니며 지역대학이 처한 현실을 호소하고 관심과 실질적 지원을 끌어냈고, 지역사회 동행에도 힘써왔다. 돌아보면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과 함께였기에 행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붕괴와 대학 정책 변화에 따른 생존 경쟁, 수도권 출몰 현상 가속화 등의 현실에서 교육 내실화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위상 확보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RIS 사업과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융합플라자를 중심으로 월드클래스 기업 및 유니콘기업 등 지역성장 동력을 꼭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장은 “세계적 베스트셀러 ‘연금술사’를 쓴 파울로 코엘류는 배는 항구에 머물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건 배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다”며 “어떤 난관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뜻과 열정이 있다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국기 태권도 활성화 목표 위해 한 발 더”

태권도진흥재단 새해 시무식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 이하 재단)은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시무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시무식은 오응환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원 성지화라는 핵심 기능에 집중하고, 교류 및 협업 적극 행정을 강화해 태권도 문화 교류 중심지로 거듭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를 위해 우수한 성과 창출을 위한 개혁안과 보건의 일상화교류와 협업, 적극행정 강화를 새해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업무 전반의 투명성과 전문성·공정성을 높이고 쇄신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다진 안전망을 점검하고 개선해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행



태권도진흥재단은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시무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복한 일터를 만들면서도 방역과 위생·보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새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업무에 반영하는 등 적극 행정 의식과 자제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오응환 이사장은 “올해도 임직원의 건강과 행복을 통해 웃음 가득한 직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재단 및 지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국기 태권도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발 더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섬진강에서 두만강까지’

소리문화전당, 새해 첫 기획전시... 송민규 초대전 5일부터 청년작가 야외조각전 ‘7ing: 칠링’ 무료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2023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기획전시로 송민규 초대전 ‘섬진강에서 두만강까지’와, 청년작가 야외조각전 ‘7ing: 칠링’을 선보인다. 2일 전당에 따르면 1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전당 전시장에서 열리는 송민규 초대전 ‘섬진강에서 두만강까지’는 강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30주년이 된 송 작가가 오랜 세월 동안 자신만의 시선으로 담아온 강의 의미를 화폭에 담았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선보인 섬진강에 국한되지 않고 민경강 임진강 한탄강 예성강 무란강, 해남까지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이번 초대전 관람료는 무료이며, 2월 11일 오후 3시 송민규 작가와 함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작가 야외조각전

‘7ing:칠링’은 오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전당 야외광장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2000세대인 박경덕, 박창은, 백지수, 이다나, 이준규, 최무용, 홍경태 7명의 작가가 참여한 ‘7ing:칠링’은 넓은 전시공간이 필요한 설치작품 특성상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작품들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다. 참여 작가들은 같은 세대지만 2023년을 바라보는 현재 진행 메시지를 저마다 다른 주제로 작품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려 한다. 칠링이란 ‘누군가를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로, 코로나19 발생 후 전당에서 처음 개최하는 야외조각전을 통해 관객들이 공원을 산책하듯이 작품을 감상하며 힐링의 시간을 갖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됐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70-8000)으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한식창의센터, 10~19일 전통병과 체험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한식창의센터는 10~19일 10일간 총 8회에 걸쳐 전수인재를 대상으로 전통병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건강한 먹거리를 손수 만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2일 전당에 따르면 최근 한류가 글로벌 대세로 이어지면서 떡, 한과 등 한국 전통 다과를 젊은 세대의 입맛과 취향에 맞는 디지털로 재탄생시키는 등 전통 다과가 생활 속 디지털, 나아가 많은 외국인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전당 역시 고유 음식문화인 떡과 한과를 만들어 봄으로써 전통병과, 그리고 전통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는 방침이다.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음식체험 프로그램은 △주악을 시작으로 △무주개떡 △약식 △퓨전약과 △전과류 강정 △다과 매작과 등 다채로운 강의로 진행된다. 원활한 체험을 위해 회차 별 30명으로 총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